

2025년 하반기 아프리카 선교 보고(이은용, 흥영신 선교사)

PCK 세계 선교사회 총회(2025.7.8~11)



PCK 선교사 총회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되어 PCK 교단 소속 선교사가 전세계에서 모였다.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 흘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은 함께 만나서 반가운 교제를 나눴다. 총회의 전반적인 주제를 보면서 다음 회기에는

일반적인 주제 보다는 선교사들에게 맞는 실제적인 주제와 강사 선택이 보강되어야 함을 느꼈다.

나의 모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맞은 66회 생일



나의 66회 생일을 장로회 신학대학교 까페페리아에서 동료 선교사들과 에티오피아 동역자 스마쵸(Smachew)의 축하 속에 맞이했다. 많은 선교사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 주었고 스마쵸가 암하리 어로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 이른 아침에 생일 케잌을 마련해 준 아내에게 고맙고 생일 축하로 모인 동료들에게 감사하다. 우리네 일생은 하나님께서

한번만 주신 기회이다. 이 기회는 생명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의 시민으로 영생의 삶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KWMF 회장단 이취임식(2025.8.6)



KWMF 제 17 회기 회장단들과 제 18 회기 신임 회장단들이 노량진 KWMA 본부에 모여서 회장단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새로 회장이 된 송상천, 김종진, 박광수, 장순현 선교사는 취임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KWMF 를 열심히 섬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나는 격려사를 통해서 변화 무쌍한 국제 정세 속에 KWMF 한국 선교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 가는 귀한 단체가 되도록 회장들이 힘써 달라는 당부와 격의 메시지를 전했다.

PCK 선교 연구 위원회(2025.9.1~2)



PCK 선교 연구 위원회 모임 개회 예배 설교에서 사도행전 1:8 절을 중심으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 제하의 설교를 했다. 오늘 선연위의 주요 의제는 PCK 선교사 자격에 관한

것이었다. 본교단에서 목회학 석사(M. Div)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국적이 달라서 본 교단 파송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은 법이니, 본교단에서 M. Div 를 마친 사람은 본 교단 선교사로 파송 받을 수 있도록 총회 규칙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케냐 나이로비 팡가니(Pangani) 순복음 교회 주일 집회(2025.9.21)



나이로비 도시 슬럼 지역에 위치한 팡가니 순복음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이다.

비록 가난한 지역의 주민들이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뜨겁게 불렀다. 전신에 땀이 흐르도록 춤추며 소리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케냐 교회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약 1 시간 동안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면서 열심히 찬양하며 기뻐했다.

케냐 카지아도 지방 임파라쿠오(Imparakuo) 교회 주일 집회(2025.9.28)



우리 부부는 34년 전 남부 케냐 맷사이 원주민 마을에 살면서 일했던 카지아도 지방을 방문해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34년 전, 우리가 운영했던 렐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조지(George)와 에버린(Everlyne) 부부를 31년만에 다시 만났다. 주의 일꾼으로 성장한 조지를 보고 마음이 뿌듯했다. 그는 카지아도 지방에 시찰장이 되어 13개 교회를

돌보면서 사역하면서 동시에 카지아도 지방 교육청에서 교육감으로 일하고 있다.

남부 에티오피아 가수바(Kasuba) 지방 선교여행(2025.10.1~11일)

암하릭 에티오피아 성경 보급 사역



안양노회에서 에티오피아에 성경 보급 사업으로 1000 권의 성경을 지원해 주었다. 오로모 성경 500 권은 송의광 선교사를 통해서 메카니 예수스(Mekani Jesus) 교단에 전달했고 암하릭 성경 500 권은 하임즈 신학교에 전달했다. 신학교 교장

인드리아스(Indrias)가 아디스 아바바까지 400Km 를 달려와서 성경을 수령해 갔다.
남부 에티오피아 복음화에 귀히 쓰임 받기를 기도 드린다.

소도(Sodo) 지방 메세레토스 크리스토스(Meseretos Kristos) 교회 부흥집회



사도행전 1:8 절을 중심으로 봄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 제하의
설교를 했다. 난 먼저 한국 전쟁
당시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 에티오피아
군인들과 정부,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에티오피아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가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산상기도와 다락방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능력을 부여 받아 능력 사역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는 32 세 젊은 나이에
케냐 올도인뇨 광야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공격적인
현신’을 했고, 결과적으로 마을 주민의 90% 이상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간증을 했다. 예배 후에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메세레토스 크리스토스 교단이
선교하는 교단이 되라는 도전과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한 종자 돈을 헌금했다.

하임즈 신학교(Harvest Africa Evangelical Mission Seminary, HAEMS) 강의



에티오피아 남부 지방 전역에서 150 여명의 신학생들이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그들은 면
길을 여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렸다.
우리 팀원들도 드라마와 찬양을 열정적으로 드리면서 에티오피아 신학생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감동의 시간이었다. 나는 첫째 날 저녁 집회에서 하나님의 최초명령(창세기 1:26~28)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사도행전 1:8)은 동일한 명령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명령이라고 설교했다. 설교를 듣는 신학생들의 눈은 반짝였고 그들의 입은 터질 듯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나는 3 일간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 에티오피아 가수바(Gasuba) 지방 의료 사역



남부 에티오피아 가수바 지방에는 14 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치과가 전혀 없다. 첫날부터 구른 떼처럼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다. 4 일간 치과와 통증 환자들을 600 명 가량 진료했다.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어서 한때 진료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3 명의 의사 선생들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현지 의사들과 협력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했다. 만일 선교의 사명이 없었다면 돈을 준다고 해도 진료를 중단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실감할 수 있었다.

2025년 HMC(Holistic Mission Church) 총회 개최(2025.10.13~17)



2025년 HMC 연말 총회에 120 여명의 목회자들이 케냐 전역에서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 그리스도 군사 선교회(대표:이종선 목사) 소속 팀원 34 명이 본회 총회에 참석해서

“성령과 치유”를 주제로 특강을 해 주었다. 이번 총회에서 34 명의 현지 전도사들이 2 년 과정의 목회자 훈련학교를 이수하여 졸업식을 했고 10 명의 목사들이 안수를 받았다. 휴리스틱 선교회 대표인 이은용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제로 3 일간 새벽 집회를 인도했다.

2026 HMC 총회 지역별 모임



HMC 총회 첫째 날 새벽 기도회 후에 지역별 모임이 진행되었다. 6 개 지역 모임에서는 2025 년 사역을 결산하고 2026 년을 계획했다. 케냐 서부 지역의 허미란 선교사는 신병 치료 차 한국을 방문 중이어서 현지 지도자 중심으로 지역 모임이 진행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담당 선교사들과 함께 2026 년을 계획하면서 열띤 토론을 했다.

나레포(NALEPO) 교회 방문 주일 예배(2025.11.2 일)



남부 케냐 카지아도 지방에 위치한 나레포 교회를 방문하여 주일 예배를 드렸다. 1991.9.15 일에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처음에 정착한 응고일레(Nkoile) 마을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할 당시 20 세 청년인 조지(George)는 우리가 응고일레 마을에서 백리길 떨어진 렐레(Lele) 마을 복음화를 위해서 이주했을 때에 함께 렐레로 이주해서 렐레 유치원에서 일했다. 이곳에서 16 세 난 에벌린(Everlyne)을 만나서 결혼했다. 그는 자신이 고향을 떠나서 헌신하고 렐레 마을로 이주하여 오지 마을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상하시어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 주셨다고 간증했다. 조지는 25 년전에 자신의 고향 일모토로키(Illmotoroki)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다가 아내인 에버린에게 교회를 물려 준 후에 2019 년에 나레포에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다. 현재 카지아도 센트럴(Kajiado Central) 지방에 13 개의 교회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이은용/홍영신 선교사의 기도 제목)

1. 2026년부터 시작하는 홀리스틱 선교 신학교(Holistic Mission Bible School)를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양성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케냐에 설립된 250개의 홀리스틱 선교교회를 통해서 케냐에 복음이 편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3. 2025년 사역 결산을 잘 마치고 2026년 선교 사역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이은용/홍영신 선교사가 영육 간에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